

21세기 목회상담에서의 변화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김영희(Th.D.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I. 여는 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21세기는 사상적 혼돈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21세기는 또한 도처에 많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현대인은 도리어 더 많은 문제를 만나고 결국 이것은 존재론적 위기와 파멸로 나아간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변화된 거대 기술문명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왜소해진 자신의 모습과 인간관계로부터의 소외를 느끼며 엄청난 고독감을 겪고 있다. Oates의 지적처럼 현대인은 “권력(힘)을 좋아하고 주도권을 잡고 남을 조종하려는 욕구로 인해 자신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스스로를 격리시키고”¹⁾ 있음을 본다. 결국 사람들은 점점 더 방어적이고, 이기적이 되고 보니 문제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상태는 더욱 악화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러한 위기 또한 도전적인 기회를 만났다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절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인간은 문제를 만나 앞이 캄캄할 정도로 압도당하면 좌절하게 되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목회상담이 제공되면,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여 낼 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좀더 넓은 안목과 사람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 남에 대한 진지한 공감과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지구상의 갈등은 조금씩 줄어들고, 긴

1) W. E. Oates. “The Theological Context of Pastoral Counseling,” *Review and Expositor*, 94, 521-530.

밀한 관계 속의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반복되는 사이클을 벗어나 사회는 치유와 화해를 향해 점차 변화되어 갈 것이다.

상담의 목표는 변화이다. 본 글은 21세기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목회상담에서의 역동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목회상담의 현장인 21세기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들을 알아보고, 이것이 인성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목회상담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목회상담에서의 변화의 요소와 역동성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참된 의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목회상담의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II. 포스트모던 시대의 목회상담

1. 21세기 목회상담의 현장인 포스트모던 사회에 대한 이해²⁾

Hans Küng은 “포스트모던(post-modernity)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 있는 개념으로,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새 시대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당혹스러움에 대한 표현”³⁾이라고 말하였다. '포스트모던'은 다양한 정의를 가질 수 있지만 특정한 시기 즉, “1789년에서 1989년까지의, 바스티유 감옥 담의 무너지는 시점부터 베를린 담의 무너지는 시점까지, 즉 프랑스 대혁명의 발발에서 공산주의의 종말까지의 현대라는 시기가 끝나고 난 그 후의 시기를 지칭하는 말이다⁴⁾”. 그러나 그 의미는 그 시기의 사조와 문화현상까지 포함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주의의 한계와 실패를 느끼고 그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나온 현대주의에 대한 반응이며 현대성에 대한 반역(a revolt against

2) 포스트모더니즘은 여러 가지로 정의 될 수 있지만, 여기서 필자는 본 논문의 방향과 목적상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목회상담의 본질과 역할과 관련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인간관계와 인성변화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한정하여 다루려고 한다.

3) H. Küng, *Global Responsibility: In Search of a New World Ethic*. Trans. J. Bowden (London: SCM Press, 1991), 3.

4) T. C. Oden, “The Death of Modernity and Postmodern Evangelical Spirituality”, *In The Challenge of Postmodernism: An Evangelical Engagement*, ed. D. S. Dockery (Grand Rapids: Baker, 1995), 20-23.

Modernity)”⁵⁾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지구촌화(globalization)의 과정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지구촌화로 인해 지리적, 사회적 속박이 없어져 버렸고, 문화에 대한 유럽중심의 주도가 깨어져 그 중심이 여러 지역(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다양하게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다변화된 포스트모던 사회는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과 기대, 인종적, 세대적, 이념적 다양성에 직면하게 되고, 이념 특히 종교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결국 이념적 다양성은 상대주의를 이끌어내게 되어 ‘모든 상황과 시대와 사람에게 두루 통용되는 진리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절대적 진리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포스트모던이라는 전적으로 새로운 해석적 상황은, 전혀 반감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긴급상황”⁶⁾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한 마디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이 자신에게 모든 권위를 부여”⁷⁾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더니즘에서는 그래도 알 수 있었던 우주가 있었고 진리는 찾아질 수 있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진리는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며, 진리란 어떤 사람(집단)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는 하나의 상징세계가 아니라, 다각적 현실(multiple realities)이 있는 거대한 우주라고 생각한다. Mitchell의 주장처럼, 이러한 다원적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아무도 진리를 안다고 말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 사물과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의 견해가 없어지고 그 반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편파적인 제외를 유도해 내어, 현재의 문화는 인간 본성의 매우 중요한 요소, 즉 종교적 차원을 무시하여, 인간은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⁸⁾. 인간은 진리를 부인하고 전통과의 단절을 표방함으로써 모든 가치와 제도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스스로 회의와 의심에 가득 차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개인은 더욱 파편화(개별화)

5) P. Sacks, *Generation X goes to College: an Eye-opening Account of Teaching in Postmodern America* (Chicago: Open Court, 2000), 115, 120.

6) W. Brueggemann, *The Bible and Postmodern Imagination: Texts under Negotiation* (London: SCM Press, 1993), vii, ix.

7) M. J. Glodo, “The Bible in stereo: New opportunities for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 a-rational age”. In *The Challenge of Postmodernism: An Evangelical Engagement*, ed. D.S. Dockery (Grand Rapids: Baker, 1995), 150-151.

8) C. B. Mitchell, “Is That All There is? Moral Ambiguity in a Postmodern Pluralistic Culture”, In *The Challenge of Postmodernism: An Evangelical Engagement*, ed. D.S. Dockery (Grand Rapids: Baker, 1995), 273-277.

되어 향락적인 대중문화 속에서 매스컴의 조작적 정보에 현혹되어 초-소비주의(Hyperconsumerism)의 영향을 받아, 자아상마저도 구매력에 의해 결정되는 등, 자신의 참 모습을 잃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도덕적 해이는 더욱 가속화된다. 그 결과, 포스트모던 사회는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잃는 의미의 진공상태(meaning vacuum)되어, 인간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잃고, 권력에 대한 갈구(will-to-power)로 나아가 초-이기적인 나르시스적 인격을 가진 “나르시스주의자(Narcissist)”⁹⁾가 되었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는 인간 스스로에게 자주권이 있음을 강조하려던 원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의미의 상실과 함께 인간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점에 대해 Thiselton은 포스트모더니즘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능동적 존재로서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수동적 희생양으로 전락해 버렸고... 소망이 무너져내려 절망한 인간은 갈등 속에서 서로를 조종하고 현실을 조작하려고 한다”¹⁰⁾고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에서는 “인간실존에서 의미의 상실과 윤리적 혼돈 및 영적 빈곤이 만연케”¹¹⁾ 되었다. Oden은 이와 같은 포스트모던을 한 마디로 “도덕적 굴레를 벗어난 것(a moral spinout)”¹²⁾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던 사회의 인간은 윤리적 혼돈 및 영적 빈곤, 그리고 의미의 상실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고 소망을 잃은 채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어야 할 우리의 목회상담은 과연 어떤 본질과 역할 및 목표를 가져야 하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

2. 포스트모던 사회의 목회상담

21세기의 포스트모던 사회는 인간 이성의 취약성과 인간 능력의 한계로 인해

9) D. Capps, *The Depleted Self: Sin in a Narcissistic Age* (Minneapolis: Fortress, 1993), 6.

10) A. C. Thiselton, *Interpreting God and the Postmodern Self: On Meaning, Manipulation and Promise* (Edinburgh: T & T Clark, 1995), 12.

11) H. J. Clinebell, “Revisioning the Future of Spirit-centered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In *Spiritual Dimensions of Pastoral Care: Witness to the Ministry of Wayne E. Oates*, eds. G. L. Borchert & A.D. Lester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103-104.

12) Oden, “The Death of Modernity and Postmodern Evangelical Spirituality”, In *The Challenge of Postmodernism: An Evangelical Engagement*, ed. D.S. Dockery (Grand Rapids: Baker, 1995), 24.

절망감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치유는 한결 용이할 것이다. 비록 인간에게서 더 이상의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 그 희망이 문제를 만난 사람의 능력이나 내면보다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 역사의 배후에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목회상담이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과 치유를 가져 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차원을 가진 목회상담의 역할이다.

1) 영적차원이 포함된 목회상담

통상적으로 목회상담은 영혼의 돌봄(care of souls, 혹은 soul care)이라는 말로 대변되어 왔다. 이와 같은 목회상담은 “사람의 내면생활, 즉, 개인의 중심인 감정과 의지를 수리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돌봄인 ‘영혼의 돌봄’의 차원까지 나아간다”¹³⁾. 이 경우 “하나님은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영혼이란 사람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인(全人)을 말한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고 몸을 입었듯이 우리가 영혼이고, 사람은 살아서 활력을 가진 전인이다. 그러므로 영혼이란 몸을 포함한, 그러나 사고와 감정과 의지의 내면적 세계에 초점을 맞춘 전인”¹⁴⁾을 말한다. 영혼의 돌봄은 라틴어의 *cura animarum*에서 유래한 것으로 “돌봄에는 돌봄과 치유의 개념이 들어있고, 돌봄이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온전한 상태(평안, 행복)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행위, 치유란 잃어버렸던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고안된 행위를 말함으로 영혼의 돌봄에는 양육과 후원 및 치유와 회복의 개념이 포함된다”¹⁵⁾.

Collins 에 따르면, 목회 상담의 목적이란 “1)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과 자신이 처해있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에 대한 참 모습을 알도록 도와주고, 2) 의사소통: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태도 등에 관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고, 3)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4) 자아구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영적성숙을 이루고 자신의 잠재된 은사를 개발하도록 돕는 것, 5) 후원: 삶에서 만난 문제들에 대해, 자

13) Oden, *Pastoral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187.

14) D. G. Benner. *Strategic Pastoral Counseling: A Short-term Structured Model* 2nd e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14.

15) Ibid.

신의 개인적 영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짐을 견뎌낼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하는 것, 6) 영적인 온전함: 영적 갈등에 대처하고, 의미 있는 신념과 가치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¹⁶⁾으로 제시될 수 있다. Clebsch & Jaekle은 목회상담을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서 문제를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 현 상황을 지탱케 해주고, 긍정적인 해결책으로 인도하며, 관계를 중재하기 위해, 기독교를 대변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도움”¹⁷⁾ 이라고 정의하며 치유, 지탱, 인도, 화해의 네 가지 역할을 강조했다. 여기에 Clinebell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자신의 좋은 잠재력 혹은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는데 까지 상담이 “양육의 역할”¹⁸⁾을 해야 할 것을 말했고, Louw는 사람이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위기를 어떻게 “해석(평가)”¹⁹⁾ 하느냐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된다고 주장하며 상담의 해석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Louw는 최근 들어 영성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지는 이유는 인간이 “삶의 초월적 차원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²⁰⁾이라고 하였다. 아마도, 초월에 대한 갈구는 포스트모던 사회와 과도기적 혼란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든 혼돈의 곤궁을 극복해 보려는 처절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영성이란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종교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인 영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그러므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루는 영적차원이 포함된 목회상담이 21세기에는 요구되고 있다.

Louw는 “영성이란 기독교 신앙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고, 그러므로 영성은 신앙을 신앙의 내용과 일상의 삶 사이의 일치를 이루어내고 신앙을 삶 속에서 구체화하여 드러내는

16) G. R. Collins. *Christian Counselling: A Comprehensive Guide Rev. & Exp. Ed.* (Milton Keynes, England: Word, 1988), 38-40.

17) W. A. Clebsch & C. R. Jaekle.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Harper, 1967), 4.

18) H. J.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ling: Resources for the Ministry of Healing and Growth. Rev. and Enl. ed.* (Nashville: Abingdon, 1984), 42-43.

19) D. J. Louw. *A Mature Faith: Spiritual Direction and Anthropology in a Theolog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Leuven: Peeters Press, 1999), 19.

20) Louw, A Mature Faith, 136.

것을 목표로 한다”²¹⁾ 고 말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를 가졌든 갖지 않았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소유의 많고 적음과 지위의 고하에 상관없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의 차원에 대한 만족 없이는 끝없는 공허함을 체험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모습이나 개념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자아상과 더 나아가 이 세상과 삶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삶 속에서 만나는 심각한 문제 속에서도 그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 주기도 하며, 크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Louw는 목회상담을 신자들의 삶을 돌보는 사역이고, 삶을 돌보는 사역은 신앙의 차원에서 삶을 돌아보게 해줌으로써 치유에 이르게 한다고 해서 “faith care as life care and therapy”²²⁾로 보았다. 그런데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인간이 삶의 의미를 잃고 절망에 빠져 인성과 영성이 황폐화되고 있으니 목회상담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와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러므로 삶을 보다 풍성하게 살도록 돕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에 신학적인 반추를 하도록 도와서 영적 성숙을 도모하게 하는”²³⁾ 단계에까지 이르러야 하겠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사회의 인간문제는 영적 차원을 다루는 목회상담적 입장에서만 완전한 해결과 치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만남(encounter) 으로서의 목회상담

Howe는 목회 상담이란 “역경 속의 사람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새로이 발견하고 자신과 타인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소중히 키워나감으로써, 삶의 풍성함을 체험케 하도록 돕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²⁴⁾ 고 역설하였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내담자는 상담의 전 과정에 걸쳐 상담자와 진솔한 의미의 만남을 통해, 고통 속에서 “함께 해주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경험을 해야 한다. 상담자와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오래 전 성경의 구원 역

21) Louw,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A Theological Design for a Basic Theory, Anthropology, Method and Therapy* (Cape Town: Lux Verbi, 1998), 19.

22) Louw, *Illness as Crisis and Challenge: Guidelines for Pastoral Care* (Halfway House: Orion, 1994), 61.

23) Benner. *Strategic Pastoral Counseling*, 36-37.

24) L. T. Howe, *The Image of God: A Theology for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95), 17.

사 속에 살아계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문제를 보고 알고 계시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 상황 속에 함께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Firet은 상담의 전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간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통하여 오신다”고 말하면서 말씀 선포(Kerygma)와 교리 교육(Didache)과 실존 상황 속의 상담(Paraklesis)의 세 가지 형태(mode)를 통하여 오신다고 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모든 사람과 개인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현실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고 그의 사랑이 느껴져 감사함을 자아낸다. 결국 목회자, 교사, 상담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사역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자는 문제를 만나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내담자와 함께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는 상담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자는 Firet이 말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 백성 가운데 오시는 일의 중재자(intermediary)가 되는”²⁵⁾ 임무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Augsburger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내면을 공감하는 단계를 sympathy, empathy, 그리고 interpathy의 3 단계로 나누고 있다. Sympathy는 “남의 감정적 경험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과거의 비슷한 아픔을 기억나게 함으로 같이 아파하는 것, 즉, 일종의 투사작용으로 나의 내면의 감정을 남에게 투사하는 것이다”²⁶⁾. 그러나 현대 사회는 너무도 다양하고 다변화된 사회이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모든 종류의 경험을 다 체험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대에서는 empathy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Empathy란 “나와 분리된 다른 사람의 지적, 감정적 세계를 감지하는데, sympathy처럼 투사작용을 활용한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이 아니라, 공통의 언어적 문화적 추론에 근거하여, 동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남의 감정을 느껴보는 의도적 감정적 반응이다”²⁷⁾. 그렇지만, 지구촌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되어

25) J. Firet, *Dynamics in Pastoring trans. John Vriend* (Grand Rapids: W. B. Eerdmans, 1986), 131.

26) D. W. Augsburger,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86), 27.

27) Augsburger, 28.

가는 포스트모던 지구상에서는 자신과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체계를 쉽사리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공감의 수준이 *interpathy*에 이르러야 한다. “비록 사고란 삶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가치란 도덕적 추론의 틀 안에서 나오며, 감정이란 또 다른 추론의 근거 위에서 발생하긴 하지만, *Interpathy*란, 비록 공통된 문화적 추론이라는 인식론적 근거는 없지만,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인간이라는 공통성 위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경험해 보려고, 나오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상상을 통해 의도적으로 파고들어 사고의 과정을 살펴보고 감정적으로도 느껴보려는 의도적인 인지적 감정적 시도이다”²⁸⁾. 결국, *Augsburger*가 말한 대로, *sympathy*는 서구 사람들의 좀더 자연스런 반응이라면, *empathy*는 동양 사람들에게 자동적인 반응이고, 그 반면, *interpathy*는 인간 모두에게 “서로 간에 다리를 놓아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 배워가는 새로운 시도”²⁹⁾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목회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하는 가운데 *sympathy*, *empathy*, 그리고 *interpathy* 를 형성하여 치유하고, 지지해주며, 인도하고, 중재하며, 양육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상황 속에 함께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소망,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변화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상담자는 변화의 촉매(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c. Storytelling 으로서의 목회상담

포스트모던 사회는, 다원화된(pluralistic) 문화 속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심각한 괴리현상을 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각 사람의 경험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사회의 목회 상담사역은 내담자 자신의 이야기를 섬세하고도 자세히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은 그 경험한 현실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목회 상담자의 중요한 과제는 자신의 문제에 압도당해 앞이 캄캄해져 성급한 몸부림으로 오히려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 억눌린 감정을 쏟아 놓는 과정을 통

28) *Augsburger*, 29.

29) *Augsburger*, 31.

해, “사람들이 삶의 문제 속에서, 그 뒤에 감추어진 왜곡된 부정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 부조리한 의미 등의 더 깊은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³⁰⁾. 이런 면에서 Lester의 말 대로 “목회상담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다. 창의적 목회상담이란, 우리를 언제나 새로운 미래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포기함으로 생긴 공백을 인식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³¹⁾이다. 또한, “어떤 사람을 도와 자신의 이야기를 기독교 이야기의 틀 안에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다”³²⁾.

Hyde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험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통찰에 이르게 한다”³³⁾ 고 말한다. 문제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런 상황으로부터 안도감을 얻게 한다. 즉, 이야기를 함으로 그 사람은 억눌린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자신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감정을 순화시키고, 다시 정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듯, 나의 이야기(my story)가 너의 이야기(your story)를 만날 때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도덕적 가치관의 대면이 일어나 좀더 넓혀진 이해의 지평 (“fusion of horizon”³⁴⁾) 이해의 지평의 융합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 storytelling은 간접화법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돌아보게 만들어 내담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케 해준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철저히 타락한 존재인지라, 자신들의 이야기 자체가 왜곡되었을 수 있고, 다른 관점과의 교차 상황이 꼭 새로운 발견과 변화를 보장해 주는 것만은 아닐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기에 진리이신 하나님 관점에서의 이야기(God's story)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고통의 근원과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받은 예수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힘주시는(empower) 모습을 드러

30)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117.

31) A. D. Lester, *Hope i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5), 76.

32) D. Capps, *The Poet's Gift: Toward the Renewal of Pastoral Care*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3), 1.

33) J. A. Hyde, *Story Theology and Family systems Theory: Contributions to Pastoral Counseling with Families* (Ph. D. Dissertation,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8), 103.

34) C. Gerkin, *Widening the Horizons: Pastoral response to a Fragmented Societ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6), 45.

낸다. 이처럼 정경적인 이야기(Canonical story)가 개인의 이야기의 옳고 그름을 측정하는 잣대와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경적인 이야기가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만날 때, 즉, 성령님이 그 개인의 마음 속에 오실 때, 개인에게 죄의 고백과 화해와 용서를 촉구하여, 이 때에 실존의 참 모습이 밝혀지고, 내담자는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이와 같은 전환(transformation)이 문제상황에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변화를 유발한다. Hyde는 이것을 “하나님 이야기의 치유적 힘(healing power of God's story)”³⁵⁾이라고 말한다. 결국, 변화에 대한 갈망이, 변화에 대한 vision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하고자 하는, 내면에서 솟아나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 내담자로 하여금 변화하도록 힘을 준다. 이것을 Firet은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변화의 역동성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특히, Fackre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근거가 되는 변화에 대한 갈망, 변화에 대한 비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의 가상적(상상력을 동원한) 도약(imaginative leap)이고 성경적 신앙에서 말하는 소망은 비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선지자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했다. 그러므로 비전은 심오한 의미로는 예견(미리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전은 그 본 것을 가능케 만드는 관점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어 일어난다”³⁶⁾.

이런 의미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소망을 자아내는 목회 상담자는 선지자와 선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의 사역은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의미의 공황상태를 만들어낸, 그래서 철저히 무의미함과 절망감을 느끼게 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비전 제시자, 소망 제공자로서의 목회 상담자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목회상담은 자신의 문제 속에서 앞이 캄캄해져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을 도와, 언젠가 새로운 미래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포기함으로써 생긴 공백을 인식하도록 돕고 그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찾아, 행복과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아 누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듣고

35) Hyde, 124.

36) G. Fackre, *The Christian Story: A Narrative Interpretation of Basic Christian Doctrine*.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84), 32.

문제를 규명하는 진단이란 “그 사람의 전 존재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으로, 자료(data)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즉 하나님의 모습과 그 모습에 대한 자신의 이해, 영적인 진리와 실존적 상황 사이의, 다시 말해, 신앙과 현실의 연관성을 찾아, 자료를 재편성함으로써 행동을 해석하되 그 가운데 의미를 찾으려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³⁷⁾.

이제 본 글의 주된 논지인 목회상담에서의 변화의 과정과 변화의 역동성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III. 목회상담에서의 변화의 역동성

1. 변화의 범위

상담과 교육의 목표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면적 행동의 변화는 내면이 변하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특별히 외부적 비판이나 징계가 동반되면 내면이 변하지 않고도 얼마간 행동의 변화처럼 가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에서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태도의 변화, 더 나아가 내면의 변화, 전 인격의 변화까지를 포함한다. Crabb은 “변화란 단순히 외부적 순종뿐만 아니라, 내면적 새로움, 새로워진 사고와 인식방식, 변화된 목표, 변화된 인성(personality)까지를 포함해야 한다”³⁸⁾ 고 했다. 이에 대해 Firet은 변화란, “모든 상황에서 두루 잘 기능 할 수 있는 능력과 건전한 태도적 차원, 즉 객관적 현실감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심적인 기능의 변화”³⁹⁾에 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목회상담의 변화의 목표는 문제의 해결과 상처의 치유뿐 아니라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문제와 삶, 그리고 다른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를 갖는 데까지 변화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변화의 역동성.

1) 변화는 객관적 현실감을 갖게 될 때 일어난다.

37) Louw,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300.

38) L. J.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7), 27.

39) Firet, 211.

사람들은 남의 문제를 볼 때는 문제의 원인과 해법도 잘 파악하면서, 자신에게 그 문제가 닥치면 문제에 압도되어 앞이 캄캄해져 전혀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다운 변화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과 상황을 남에게 일어난 일처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좀더 넓은 관점이 생길 때에야, 침착하게 해법을 찾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Firet은 이것에 대해 어떤 사람이 일어난 사건과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현실감(objective realism)”⁴⁰⁾을 가질 때에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어떤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을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남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평상심을 잃지 않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그에 따라 편견 없이 순수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에야, 자신의 문제를 받아 들이게 되고, 무엇이 왜곡되었고 무엇이 부족한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변화에 대한 갈망과 비전이 생겨나며, 내면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힘이 솟아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 차분히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 변화는 내담자의 내면에서 변하고자 하는 힘이 솟아날 때 가능하다.

Firet은 좀 더 자세히 변화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을 “agogic moment”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문제나 관점에 대한 이해의 빛을 가져오고 깨달음을 창조해 내는 힘인 “hermeneutic moment”⁴¹⁾와 함께 작용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역설한다. 즉, 변화란 내담자가 그 동안 사건이나 상황을 편협하고 좁게 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내면에서 변하고자 하는 힘(욕구)이 솟아나오게 될 때에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담자의 적극적 참여와 자의적인 깨달음과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변화는 성령의 역사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 같은 느낌으로 공포에 질리게 되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적절히 분별하거나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그러진 반응을 통해

40) Firet, 209.

41) Firet, 94.

자신에 대한 개념들이 왜곡되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당황스런 상황 속에서의 성급한 몸부림으로, 오히려 해법을 찾지 못하고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인정하게 되고, 구원 받기를 바라게 되고, 그 상황에서의 변화를 소망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사람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변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오게 될 때에만 변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부어 주심으로, 개인에게 은사가 허락되어, 인간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게 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철저히 죄로 물든 인간이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을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남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문제를 받아 들이게 되고, 무엇이 부족한지 순수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 차분히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설적이고 책임감 있게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⁴²⁾ 행동으로 옮기는 자발적인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죄로 물든 인간이, 특별히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초-이기적인 자아나 인격을 가진 나르시시적 인간(Narcissist)이 본성을 거슬러, 현실을 객관적으로 수용하고 편견 없이 분별하며 창의적인 결단을 내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객관적인 현실감을 갖게 되는 변화의 과정이야말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다.

(1) 변화는 외부적 비판과 정죄가 없을 때 일어난다.

결국, 어떤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자의적 결단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될 때에야 효과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그런데, 현실을 남에게 일어난 일처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때는, 외부의 물리적 인 힘이나 압력이 없는 안전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즉, 비판이나 지적이 없을 때, 자신이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될 때 가능하다. 인간은 비난이나 고소가 있다고 느끼면 방어기제의 갑옷을 입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은 비판과 정죄의 태도가 배제된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의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

42) Firet, 230.

까지도 공감하는 안전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변화를 향하여 일어설 수 있게, 변화의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처럼, 인간의 문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때, 올바른 의미의 변화와 치유가 가능하게 된다.

(2) 상담자의 역할: 변화의 촉매자

그렇다면, 목회상담에서의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상담자는 도구일 뿐인가? 변화에 있어 상담자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은 어떤 관계가 있나? Firet은 “성령님이 외적인 목회자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할 때: 말씀의 설교와 성례 사역에는 각각의 독특한 두 가지 사역이 있다. 외적으로는 목회자가 울리는 말씀을 발설하고, 이 땅에서의, 없어질 것에 대한 성스러운 표징을 행한다. 그와 동시에 내적 사역자인 성령님께서 내부에서, 숨겨진 힘으로, 독자적으로 자원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효력있게 만드시는 사역을 한다”고 한 Calvin의 말을 인용하면서 “외적으로는 목회자가 자신의 말을 하고 성례를 집행하지만, 그 사역은 내적 교사이신 성령님이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구속의 약속이 효과를 내도록 가르치지 않으시면 그 말은 공기만 진동하고 귀만 때릴 뿐 아무 소용이 없다”⁴³⁾고 말한다.

결국, 상담자의 사역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사역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이면서도, 하나님의 행위 속에 의미와 근거와 목표를 둔 행위이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행위는 사람과 동떨어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하나님의 오시는 사역과 인간 실존의 참여의 두 가지 일을 다 대변하는 것이다. 그 반면, “성령님의 사역은 사람이 하나님의 오시는 사역에 참여하도록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사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이 인간을 조작하거나 그 행위를 피상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에게 자유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신다”⁴⁴⁾.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오시지만, 인간관계를 통해 역

43) Firet, 128.

44) Firet, 134.

사하신다. 성령님은 변화의 주체로, 상황가운데 내담자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며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시다. 상담자는 하나님의 도구지만 피동적 수동적 주체가 아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면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가운데, 내담자로 하여금 사건과 상황을 수용하고 분별하게 도와주며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쉽게 도와주는 변화의 촉매자(catalyst of change)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자는 “자신들이 성령님께 의존함을 기억하고, 치유는 자신들의 기술적 적용이나 삶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어 모든 성숙과 건설적 변화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⁴⁵⁾.

(3)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동등한 인격으로서의 만남.

변화는 내담자가 당면한 문제는 자신의 문제이고 자신의 인생임을 절감하고 상담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리고 내면에서 변화하려 하는 힘이 솟아 오를 때, 다시 말해 변화하려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결단(self-determination)을 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스스로의 결단은 비난이나 정죄가 없는 안전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동등한 인격(인간됨의 자질이 동등할 때, equal in the quality of being human)으로 만날 때 가능하다. Firet은 목회상담자와 내담자가 “동등한 인격으로서의 대화(equihuman address)”⁴⁶⁾를 나눌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서로 눈과 눈을 마주 대하고, 서로 말하고 들어주며, 서로 도와주는, 마지 못하여 하는 것이 아닌 서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간됨을 충분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담상황에 상담자는 완벽한 지식을 가진 사람 혹은 절대 진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그 자리에 임해야 한다. 처절한 문제에 휩싸인 내담자라 할지라도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처절한 문제 속에 있는 내담자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 순간도 살 수 없음을 절감한다. 그런데 내담자뿐 아니라 상담자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 순간도 살 수 없었고, 이제까지 생존할

45) Benner. 36-37.

46) Firet, 160.

수 도 없었을 것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겸허하게 비판이나 정죄하지 않고 상담 상황에 임해야 한다. 다만 상담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으로서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려고 하는 태도를 취할 때 성령님의 역사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상담자는 비록 변화를 일으키는 자는 아니지만 변화가 일어나기 쉽게 도와주는 변화의 촉매자 역할을 함을 기억해야 하고, 내담자는 내키지 않는다는 태도와 저항감을 버리고 마음 문을 열고 변화가 필요함을 절감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내맡겨야 한다.

(4) 변화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때 일어난다.

변화는 객관적인 관점이 생길 때 일어나지만 한편, 좀더 넓은 관점과 새로운 관점이 생길 때 효과적으로 일어난다. Egan은 위기 상담을 위한 계획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신뢰관계 형성과 문제규명단계, 두 번째 단계는 역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찾아내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목표설정과 따른 행동 시행과 평가 및 재조정 그리고 재시도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를 확실히 규명하고 행동 변화의 목표를 세우려면 내담자로 하여금 좀더 넓은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야 함을 말하고, 특히 내담자가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에게 스스로 도전 (self-challenge)”⁴⁷⁾ 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변화가 내담자의 내면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힘(의욕)이 솟아오를 때만 가능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Capps 또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야 참다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의 전환은 자신이 “재구조화(reframing)”⁴⁸⁾ 라고 부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다. Capps는 재구조화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고, 희망이 깃든 예술이라고 불렀다. “재구조화는, 사람은 선입견이라는 한계를 깨고 나와 인간 가능성의 좀더 넓은 이해로 나갈 수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둔다. 재구조화는 내담자의 사고방식을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면서 Stephen & Carol Lankton의 말을 인용해서 재구조화의 효력을 말하고 있다: 재구조화는 1. 자신의 “동기와 욕구,

47) G. Egan, *The Skilled Helper: Model, skills, and Methods for Effective Helping*. 2nd ed. (Monterey, Ca: Brooks/Cole, 1982), 153-54.

48) Capps, *Reframing: A New Method in Pastoral Care* (Minneapolis: Fortress, 1990), 17.

갈망 혹은 현재와 과거의 행동의 의도들을 밝혀주고, 긍정적으로 (상황에 따라 좋은 의도로) 이름 붙여준다. 2. 동기와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동들을 구별해서 내담자의 실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좀더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게 해준다. 3. 경험한 바를 새롭게 구조화해서 문제행동과, 감정, 생각들에 새로운 배움과 바람직한 경험들을 창조해 낸다”⁴⁹⁾ .

한편, Watzlawick, Weakland, & Fisch는 “사고와 감정의 틀이 바뀌거나, 상황을 경험한 관점이 바뀌게 될 때, 그리고 그 구체적 사실이 그 상황에 더 잘 맞는 곳에 자리매김할 때, 그 전체의 의미가 바뀔 수 있게 된다”⁵⁰⁾고 말했다. Capps는 더 나아가, 재구조화 계획은 “상상력과, 장난기, 그리고 상담자가 바보스러워 보이거나 내담자에게 어리숙하게 보일 정도의 인식(recognition) 등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때로 모순(paradox)적인 모습이 문제의 형성과정에서도 그랬듯이, 문제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⁵¹⁾ 라고 말함으로 변화에 있어서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장난기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중요하게 여겼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Louw는 시스템 내의 변화의 과정을 대조와 모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자세히 묘사했다: “옛 상황과 문제행동은 새로운 이해에 의해 바뀌게 된다.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종종, 대조와 모순을 사용함으로써, 놀라운 반응을 야기하여 그 결과 시스템 내에 상호작용의 과정을 바꿈으로써 생기게 된다. 새로운 통찰과 이해의 틀의 대조는 그 전의 효과가 없었던 행동에 대해 모순적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놀랍게 비틀어(왜곡시켜) 변화를 야기한다”⁵²⁾. 이처럼 재구조화는 조각난 경험들을 하나하나 새로 해석하고 빠진 정보들을 보충하고 재배치하게 해서, 퍼즐을 맞추어 나가듯 문제와 상황들을 좀더 넓은 관점으로 새롭게 보게 하여 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a) 신앙의 관점, 신학적 관점의 도입

여기서 새로운 관점에 목회상담의 핵심인 신앙의 관점, 신학적 관점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말하려 한다. 앞에서 우리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목회상담

49) Capps, Reframing, 25.

50) Watzlawick, P., Weakland, J., & Fisch, R. *Change: Principles of Problem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W. W. Norton, 1974), 95.

51) Capps, Reframing, 22.

52) Louw,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303.

은 영적 차원이 포함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리고 storytelling 기법을 활용한 상담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신앙의 관점은 정경적 이야기인 성경의 진리와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자신의 삶에 활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신앙의 관점으로 당면한 문제를 보고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신학적,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인간은 타락 후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의 심리적 고뇌 그리고 갈등과 혼돈 및 왜곡이 시작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창조물과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애고(ego)적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⁵³⁾.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자신들과, 살고 있는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과 갈등관계 속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 대하여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 구원계획은 인간의 반역에 대한 속죄인 십자가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받아야 마땅한 벌과 수치를 대신 받고 버림 당하심을 통해,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신앙적 반응에 근거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승천하시어 참 구주가 되시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대언자가 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인간이 아직도 죄된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에 인간은 거듭났어도 끝없는 문제 속에 처하게 된다.

이런 인간은 문제를 만나 곤궁에 처하게 될 때, 자신이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며 인간의 유한성을 느끼고 창조주 앞에 겸허하게 서게 된다. 문제 속에서 인간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왜? 하필 이 시점이냐”고 항변한다. 창조주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외아들도 내어주신 분 이시기에 “하물며, 내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왜? 너면 안 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반문치 않으시고 오히려 외아들을 잃는 고통을 당해 보신 아버지로서, 문제 속 고통 가운데 내담자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아픔을 충분히 아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53) W.T. Kirwan,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A Case f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4), 78.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자신만이 혼자서 이런 곤궁에 처해있다고 생각되어 처절한 고독감 속에 절망하게 되는데, 이 곤궁한 국면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느끼고 혼자라는 고독감 속에서 헤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다만, 가장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실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b) 신앙의 성숙 과정에서의 하나님-이미지의 치유적인 힘

Louw는 목회 상담적 “진단은 신앙을 실존의 상황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명백히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의미가 신앙적 행위와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는 것이다”⁵⁴⁾. 라고 말했다. 목회적 진단에 대해 좀더 자세한 Louw의 설명을 들어보자.

목회적 진단은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미지)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적용이 의미의 추구를 다루는 삶의 이슈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영성은, 인간의 근본적인 죽음의 공포의 영역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 고독과 소외 그리고 낙담과 절망의 경험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죄와 수치의 경험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지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회적 진단은 하나님 이미지와 궁극적 삶의 의미를 찾는 영역 속에서 신앙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⁵⁵⁾.

그러므로 목회상담자는 내담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하나님의 개념들을 파악하여 혹시 부정적이고 억압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내어 교화적이고 건설적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보통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Lawrence 는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한 좀더 지적이고, 심리적인 사전적 의미의 정의인 반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것이라는 개인적인 이미지에 대한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모습을 언급하는 것”⁵⁶⁾ 이라고 말한다. Louw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말은 때

54) Louw,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318.

55) Louw, *A Mature Faith*, 236.

56) R. T. Lawrence, “Measuring the image of God: the God image inventory and the God

우 복잡한 이슈로서, 문화적 영향과, 교회의 고백과 교리 그리고 철학적 인간론적 개념들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체험과 연관이 되어있다”⁵⁷⁾ 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은 Fowler가 말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비유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위 그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특히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⁵⁸⁾이다. 그러므로 특히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문제와 그 배후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및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절하고 부적절한 이해에 대한 그 사람의 관점을 살펴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때때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가속화 시켜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Howe는 목회 상담은 “역경 속의 사람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새로이 발견하고 자신과 타인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소중히 키워나감으로써, 삶의 풍성함을 체험케 하도록 돕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⁵⁹⁾고 역설하였다.

McFague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비유만을 쓴다고 말하면서, 비유란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잘 아는 것의 용어를 빌어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말할 때 잘 아는 것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려는 시도”⁶⁰⁾ 라고 설명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인간에게 익숙한 용어를 활용하여 하나님에 대해 군주적 모델: 하나님을 지배자나 왕 혹은 재판관으로 인식하는 견해, 가족모델: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보는 견해, 언약적 모델: 하나님을 친구나 동반자 혹은 비밀을 나누는 사이로 묘사하는 견해, 개인적/사랑의 모델: 하나님을 신랑, 신부와 같은 사랑의 용어로 보는 견해 등의 네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결국, 사람들이 삶의 문제 속에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경을 딛고 일어나게도 만들고, 좌절하여 쓰러지게도 만든다. 즉, 거대한 우주만물 속 지구라는 작은 별에 사는 60억 이상의 인구 중 하나인 자신의 이름과 상황과 형편, 그리고 한 번도 남에게 말해보지 않은 자신의 내

image scal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2, (1997), 214.

57) Louw,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330.

58) J. W. Fowler, *Faith Development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1987), 46.

59) Howe, *The Image of God*, 17.

60) S. McFague, *Models of God* (Philadelphia: Fortress, 1987), 33.

면의 불안, 죄책, 수치, 공포, 안달조차도 구주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상황에 오셔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며 문제해결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다면 내담자는 지금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시련임을 깨닫게 되고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버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필자는 “신앙의 성숙과정에서 하나님 이미지가 갖는 치유적인 힘”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이렇듯, 언제든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과 같은 이미지의 하나님, 엄하게 책임과 죄 값을 언도해야 하는 순간에 무죄방면을 선고하는 재판장 같은 하나님, 끝까지 자신들 생각만 하는 인간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자신의 권익이나 영광 구하지 않은 헌신적 사랑을 가진 대속주이신 친구이신 하나님, 한 번 언약으로 맺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혼이나 별거를 선언하지 않는 영원한 신랑(신부)되신 하나님, 인생행보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생명의 삶의 동반자이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는 역경 속에서의 인내를, 절망 속에서의 소망을 만들어내는 치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c) 십자가와 부활 신학 :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과, 미래를 소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끈질긴 사랑의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을 가져온다. 인간의 삶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와 만날 때, 인간에게는 새로운 관점, 더 넓은 관점이 생기면서, 인간은 인간의 삶의 이야기를 재구조화할 수 있다. 유린당하고 희생당해서 세상에 대한 분노로 들끓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스스로 유린당하기로 결단한, 철저히 최악된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끝까지 자신의 명예와 권익을 돌아보지 않기로 결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만날 때, 동병상련의 측은한 마음(sympathy)을 느낄 뿐 아니라, 한편, 그 분에게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한 장본인이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때 충격 속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거저 받은 사랑으로 새 삶을 얻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지위에 대한 기쁨으로 인해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힌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고 망가졌던 관계에 화해를 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십자가와 부활신학은 문제 속에서 한계성을 절감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겸허해진 인간에게 죽음, 절망 뒤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고,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기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럼에도

도 마지막 날에 완전해질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요 징표가 된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Louw에 의하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일깨워 고난에 직면하게 힘을 줄뿐 아니라…절망적이고 허무하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제공하고, 고통을 부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새로운 비전과 개념을 준다”⁶¹⁾. 즉 십자가와 부활을 회상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견디어 내게 도와주고 새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해줌으로써, 내담자의 내면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힘이 솟아나와서, 사건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수용하고, 순수하게 분별하게 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신과 세상과 다른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게 해준다. 그 결과, 내담자는 성령의 사역에 몸을 맡기고, 지극히 이기적인 죄 된 본성을 벗어나, 자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인간관계를 왜곡시킨 그 사람에게 화해를 제언하는 변화를 만들어낸다.

III. 닫는 글

지금까지 우리는 기존의 진리와 전통을 부인함으로써 도덕률이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인성이 황폐화되고 영성은 고사하기에 이른 21세기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의 삶의 문제와 아픔을 말하게 하고, 그에 따라 섬세하게 진솔하게 들어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신앙의 차원에서 만난 문제와 문제에 연루된 다른 사람과 세상과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영적 차원이 포함된 목회상담의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상담의 목표인 변화의 역동성에 대해 고찰하면서, 변화는 문제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넓은 관점이 생길 때 시작되며, 변화의 전 과정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살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는 내담자와 동등한 인격으로 만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 성령님의 역사의 장을 마련하는 변화의 촉매자가 되어야 함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변화는 객관적 관점뿐

61) D. Louw, *Meaning in Suffering: a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for pastoral care and counselling*.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0), 161.

아니라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길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일어남을 말하고 그 새로운 관점에 신앙적, 신학적 관점을 도입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삶의 이해에 대한 해법과 치유의 핵심이 됨을 보았고 더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사건에 대한 신앙이 인간의 얽혀버린 감정과 관계에 용서와 화해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궁극적인 인간문제의 해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많은 21세기 인간 사회에서, 현 시대 정신과 문화가 어떻게 인간을 오도하는지 바로 알고, 그 가운데 인성이 황폐화되고 영성이 고사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인간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앙적 관점에서 문제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데 까지 나아가는, 영적인 차원이 포함된 목회상담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Abstract

the Dynamics of Change in Pastoral Counseling in the 21st Century.

Kim YoungHee(Th.D.)

A quantum leap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brought the change in social structure. And the coming of Postmodernism in the human society brought a sense of great confusion. The essence of Postmodernism is the denial of truth, hyper-consumerism, de-traditionalization, and moral spinout. As a result the human personality is desolated and spirituality is drying out. On this earth, there are so many wars, natural disasters, strives between religions and tribes. Therefore, the human races face so many troubles and were put into crises. In this article the dynamics of change in Pastoral Counseling was examined.

The nature of Pastoral counseling in Postmodern society was concluded as first, with spiritual dimension, second, for the experience of God's presence (being with) through the empathic listening, and third, with storytelling method.

The dynamics of change was studied: Change can occur with non-critical atmosphere, and only when the counselee feels the necessity of change and as a result only when the counselee willingly and voluntarily determine to stand up for the change. Change can occur when counselor and counselee meet in equality of being human and have equi-human address. Change was viewed as a work of Holy Spirit. In the process of change, counselor works as a catalyst of change not the subject of change. Change can be vitalized with the objective realism which includes the capacity of unhindered receptivity, pure discernment, and creativity.

Change also occur with a new perspective which is the perspective of faith and theology at the core of which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cross and resurrection. Also there is therapeutic impact of God-image that is, as parents, redeemer, Savior, and soul friend. Therefore, pastoral counseling has to examine the personal life story in the perspective of God-image and find out if there is

any distortion or dysfunction of faith, and reframe the whole data and the meaning of information to provide vision and hope.

Key words: change, Holy Spirit, resurrection, pastoral counseling, postmodernism,

한글 키워드: 변화, 성령, 목회상담, 포스트모더니즘, 부활.

K C I